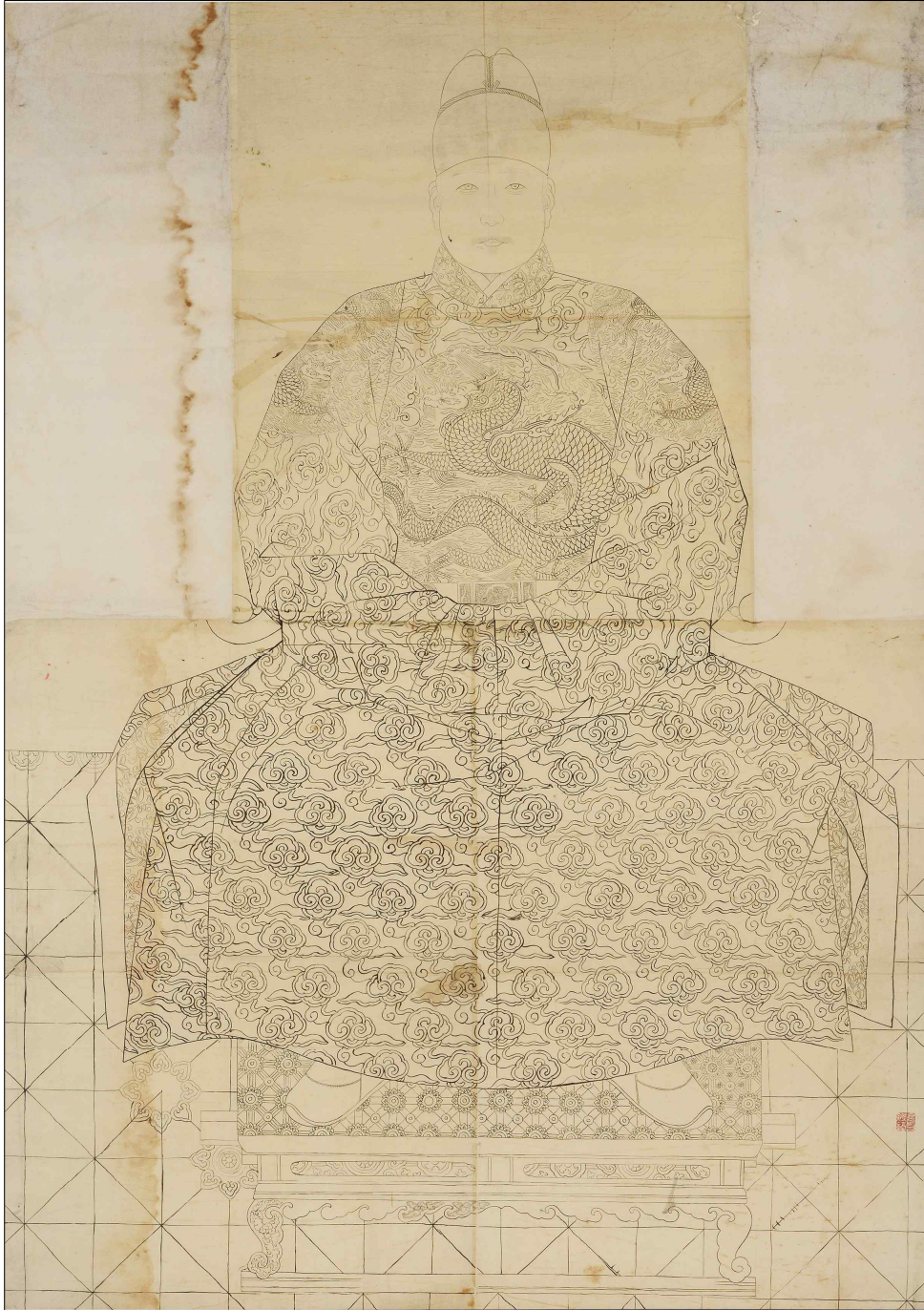


## 사 진 자 료



세조 어진 초본 / 김은호, 1935년

- 1935년에 기존 세조世祖(1417~1468년, 재위1455~1468년)의 어진을 모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김은호가 그린 밑그림이다. 어진 우측 하단에 김은호의 인장이 찍혀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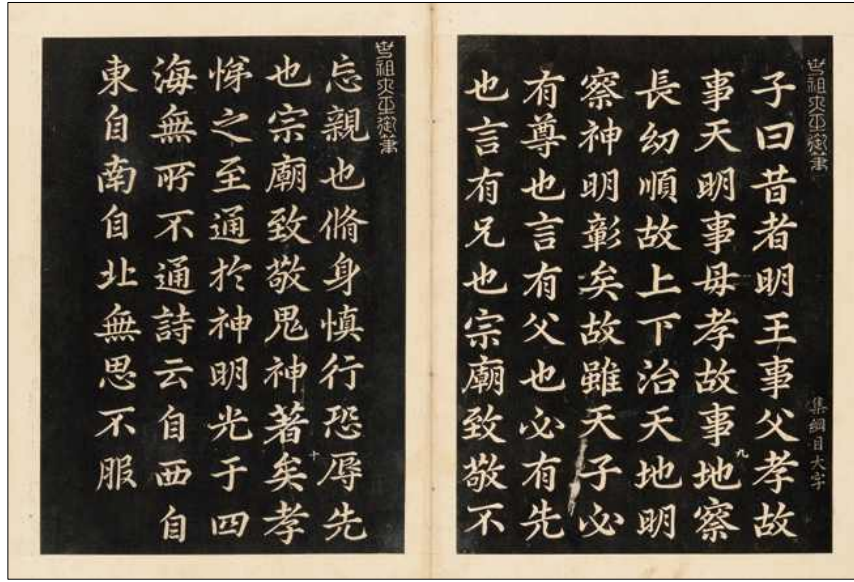
진법 (陣法) / 15세기 말 이후,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

- 세조가 수양대군 首陽大君 시절 문종의 명으로 육지에서 벌이는 전투의 진을 짜는 방법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첫머리에 직접 지은 서문이 실려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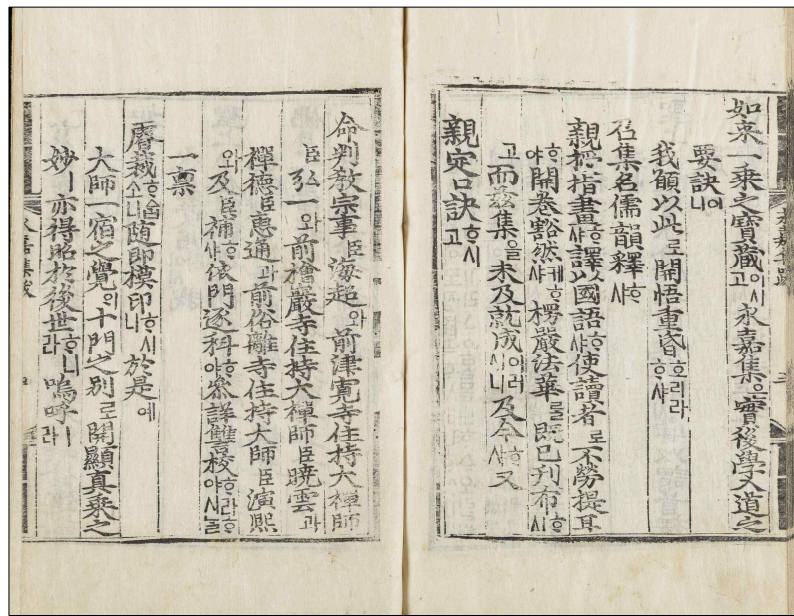
자규루도 (子規樓圖) / 18세기 후반,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

- 자규루는 단종이 영월 유배 시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견주어 지은 '자규子規' 시를 지은 장소로 전하는 정자이다. 이 그림은 정조 대에 재건된 자규루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종과 관련된 유적들을 묘사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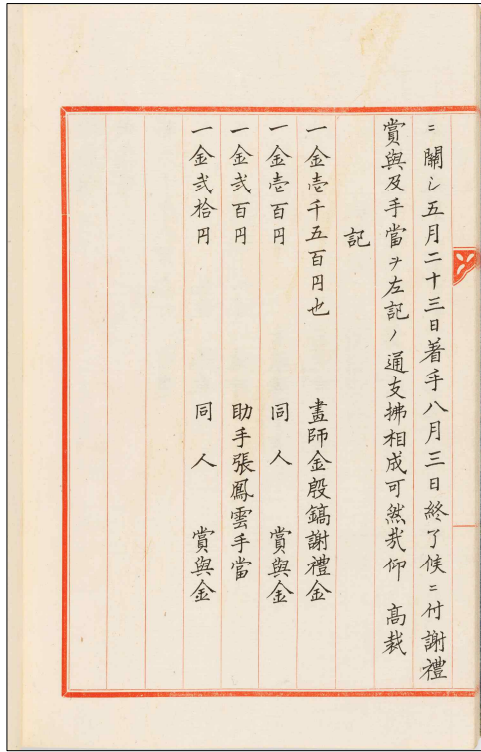
열성어필 (列聖御筆)

- 역대 왕들의 글씨 탁본을 모아 놓은 첩帖에 실린 세조의 친필로 『효경孝經』의 ‘응감장應感章’을 옮겨 쓴 것이다.



선종영가집언해 (禪宗永嘉集諺解) / 1464년 이후,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

- 선가의 핵심 불전인 『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』을 한글로 번역한 책으로 세조가 친히 한글로 토를 달고, 효령대군(孝寧大君, 1396~1486) 등이 번역하여 1464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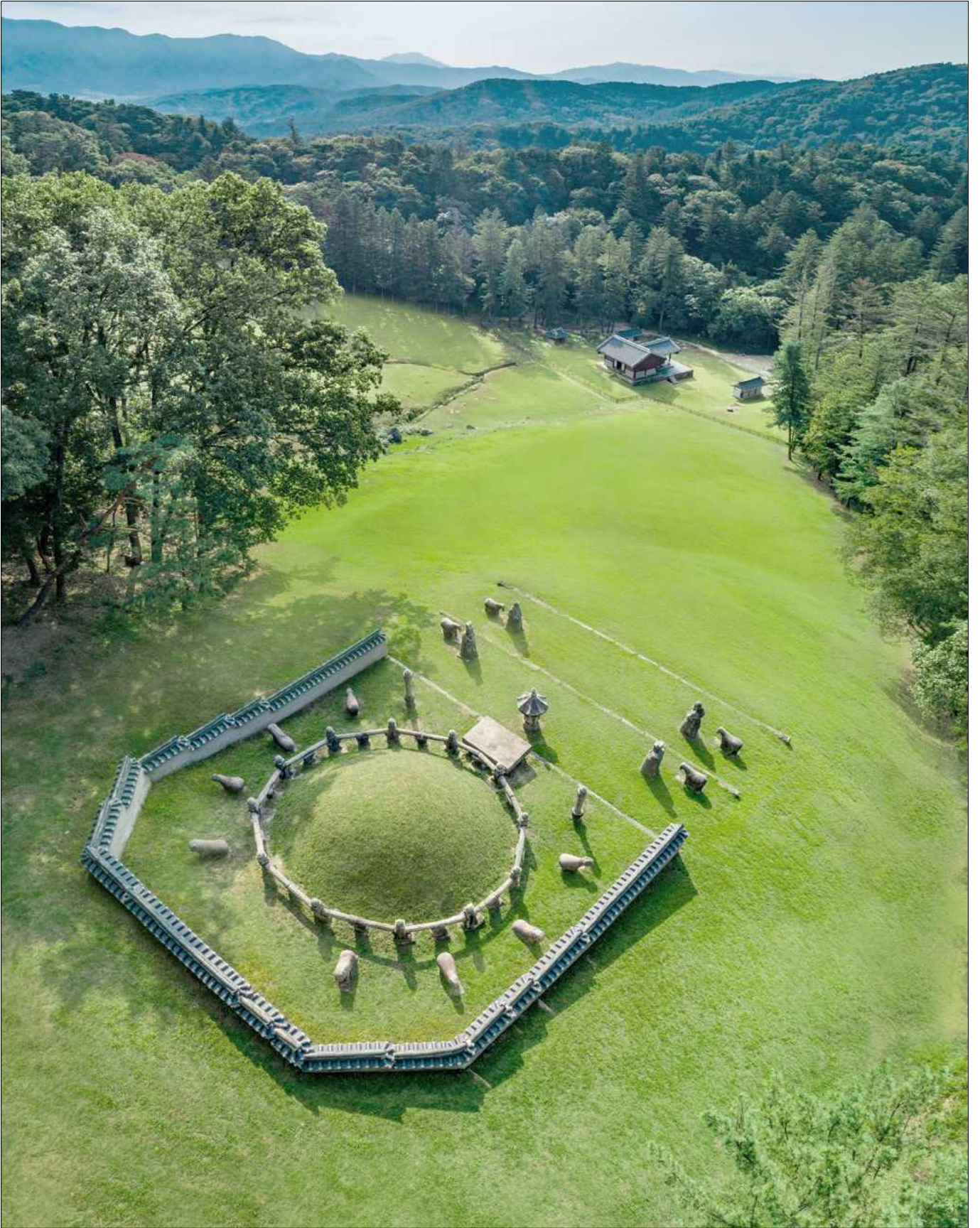
선원전영정모사등록 (璿源殿影幀摹寫膳錄) / 1936년,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

- 1935년 4월부터 1936년 1월까지 창덕궁 신선원전의 <세조 어진>과 <원종 어진>을 모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.



영조가 광릉 참배 후 직접 쓴 글을 새긴 현판 (英祖御製御筆懸板) / 1755년

- 1755년(영조 31년) 영조英祖가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을 참배하고 난 뒤의 감회를 손수 지어 쓴 글을 현판에 새겨 광릉 재실齋室에 건 것이다.



세조의 능, 광릉(光陵)